

[보도자료] 쿠팡이츠,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상생마켓 오픈 전통시장 판로 확대해 동반성장 강화

2023. 10. 6.



전국상인연합회 정동식 회장(좌)이 쿠팡이츠서비스 김명규 대표이사(우)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막식에서 전국상인연합회 정동식회장(좌)이 쿠팡이츠서비스 김명규 대표이사(우)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상생지원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했다.



쿠팡이츠서비스 김명규 대표이사(좌)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우)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쿠팡이츠 상생마켓 부스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방문했다.

- 중기부 개최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상생마켓 오픈해 전통시장 상생 지원 나서

- 2020년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시작해 전국 1600개 점포 쿠팡이츠 진출해 매출 성장 성과
- 전국상인연합회 코로나19 어려움 극복위해 전통시장 지원한 쿠팡이츠에 감사패 수여

2023. 10. 6. 서울 - 쿠팡이츠를 만난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판로 확보를 위한 열기가 뜨겁다. 코로나 전후로 쿠팡이츠와 함께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며 매출 성장 가능성을 경험한 전국의 상인들이 적극 나서는 가운데 쿠팡이츠가 전통시장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쿠팡이츠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K-마켓 페어'에 참여해 상생마켓을 오픈했다. 이번 박람회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전국 전통시장 150여곳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에서 열린다.

쿠팡이츠는 이번 박람회를 찾은 전국의 상인들을 위해 준비한 '상생마켓'에서 쿠팡이츠 입점 절차에 대한 코칭과 온라인 판매 교육, 전문 사진 촬영, 쿠폰 할인 등 다방면의 지원이 포함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 알린다.

더불어 고객들이 보다 쉽게 쿠팡이츠 앱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전통시장 점포와 할인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는 '전통시장관'을 앱에서 운영하는 한편 이를 박람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체험 섹션도 마련했다.

쿠팡은 지난 2020년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작해 중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로 확보를 위한 상생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지난 3년간 전국 135개 시장 1600여 곳의 점포가 온라인 시장에 진출했으며, 이들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일 진행된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막식에서는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생을 위해 시작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한 공로와 감사의 뜻으로 전국상인연합회가 쿠팡이츠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쿠팡과 쿠팡이츠는 관련 단체, 상인 및 지역과 적극적으로 상생 협약을 맺으며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노력을 쏟고 있으며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쿠팡이츠서비스 김명규 대표이사는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시작된 쿠팡이츠의 전통시장 상생 지원이 상인들의 디지털 전환으로 이어지고, 고객들의 온라인 전통시장 주문이 늘면서 상생의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 동반성장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도의 지원과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